

언어 영역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②	5	①
6	①	7	③	8	④	9	④	10	⑤
11	①	12	②	13	①	14	①	15	⑤
16	②	17	⑤	18	⑤	19	③	20	④
21	③	22	⑤	23	②	24	④	25	④
26	②	27	⑤	28	③	29	④	30	③
31	⑤	32	⑤	33	③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④	39	②	40	②
41	④	42	①	43	⑤	44	①	45	①
46	②	47	②	48	⑤	49	⑤	50	①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교훈 파악하기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범죄 행위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의식을 통해 죄를 지은 사람을 계도한다는군요. 우선 죄를 지은 부족원을 마을 한가운데에 세운 다음, 모든 부족원들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그동안 베풀었던 선행을 하나씩 말한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좋은 면을 부족원 모두가 찾아내어 칭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의식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부족원 전체가 다 찾아내면 즐거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으며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의식은 잘못을 저지른 부족원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 주면서, 그로 하여금 부족의 규율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색다른 심판 때문에 이 부족에는 범죄 행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족원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탓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장점을 말해줌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낚아채고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이것 좀 봐봐. 쿼기가 서로 다른 막대 모양으로 된 것은 바코드인지 알겠는데, 이 옆에 있는 격자무늬의 네모는 처음 보는데 뭐지 아니?

남학생: 글썸. 이건 QR코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자세한 것은 나도 잘 모르겠어.

여학생: 그래? 그럼 우리 인터넷에서 같이 찾아볼까?

남학생: 그럴까? (사이) 음. 여기 있다. QR코드는 바코드가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해. 바코드 밑의 숫자들에는 상품의 가격, 생산 시기 같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학생: (남학생의 말에 끼어들며) 그런데, QR코드는 숫자가 없잖아.

남학생: 맞아. QR코드는 숫자가 아닌, 격자무늬의 네모에 정보를 저장한다. 그런데 작은 크기로도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상품을 생산한 회사의 주소, 상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 등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여학생: 와! 정말이네. 나도 하나 찾았어. QR코드는 코드의 일부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

남학생: 바코드에 비해 장점이 많은 걸. 다른 특징은 또 없을까?

여학생: 음……. 여기 있다. 바코드는 판독기를 막대와 수직으로 대야만 정보를 읽을 수 있어서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QR코드는 어느 방향에서 대어도 정보를 읽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이유는 없네.

남학생: 그건 내가 찾았어. QR코드에 보면 세 군데 모서리에 큰 네모가 있지? 그 네모를 위치관독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 대화는 바코드의 발전된 형태인 QR코드의 특징과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QR코드의 크기나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 판독 방법에 대해 바코드와 비교하면서 대화를 전개하고 있다. 바코드는 막대 표시에, QR코드는 격자무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지 문자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웬지 평소보다 기분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비가 오는 날,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원인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잠념이나 불안감을 줄여 상쾌하고 평온한 기분을 갖게 해주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게다가 감각에도 영향을 줘 진통 효과를 보이기도 하죠. 따라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평정심을 잃고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한편 멜라토닌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천연 수면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하루 주기의 생체 리듬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수면 욕구가 생겨 잠이 오게 되는 거죠.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을 때, 멜라토닌은 빛의 양이 적을수록 분비가 촉진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낮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이유도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울함, 불안감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비가 오는 날의 신체 변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라디오 방송에서는 비가 오는 날 기분이 우울해지는 원인을 호르몬의 분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햇빛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가 와서 우울할 때는 햇빛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5]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소방방재청 김철수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 과장(남): 최근 들어 겨울철에 폭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어도 눈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처벌 위주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과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과

태료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내렸을 때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예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눈이 와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과장: 눈이 내렸을 경우, 관공서·학교·회사 등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김철수 과장님을 모시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국민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보다 계도와 홍보, 그리고 긍정적인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사회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야 할 일 등 화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벌보다는 계도나 홍보, 긍정적 보상 등이 좋을 수도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 [출제의도] 의도를 파악하여 창작하기

대담자는 겨울에 눈이 올 경우 눈을 치우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번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이 당연하듯 눈이 오면 당연히 눈을 치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상하기

<보기>에서 물레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빚을 때,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②번과, 도자기를 급히 말리면 갈라지므로 천천히 건조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③번과, 도자기 모양을 빚는 것이 어렵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은 ④번과, 도자기 제작 전에 자신이 만들 도자기의 모양과 제작 과정을 먼저 구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⑤번과 연결된다. 하지만 <보기>에는 ①번의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공정무역의 현황을 소개하는 기사이고, (나)는 공정무역의 개념 및 목적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다. (가)와 (나)의 자료를 활용하면 현재 공정무역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공정무역이 지닌 긍정적 측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가)와 (나)에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상품의 다양화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③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및 보완하기

㉔에는 'II-1-다'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 방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의 주어는 '저희 동아리에서는'이므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피동 표현 대신에 '만들었습니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조건에서는 대구의 형식, 실천의 효과를 비유적

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은 실천의 효과와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②는 대구가 없으며, ③은 실천의 효과와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④는 대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⑤는 첫 문장에 대구가, 두 번째 문장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내용 또한 실천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1.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탐구하기

‘아뿔튼’이 아니라 ‘아무튼’으로 소리대로 적는 것은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항에 제시된 ‘결단코’, ‘기필코’ 등의 부사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부르다’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의 의미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의 의미로, 세 번째 문장은 ‘구호나 만세 따위를 소리 내어 외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김정환, ‘제3병동’

1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서술자는 김종우의 시선으로 강남옥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김종우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4.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강남옥은 어머니의 병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침대를 사용한다. 처음에는 의사로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만 신경 쓰던 김종우는 강남옥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김종우는 병에 걸린 강남옥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함을 말하며, 그녀의 병에 대하여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작품을 통해 인부들이 유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5.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은 강남옥이 전염병 환자인 어머니와 같은 손가락을 사용하여 미음을 먹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죽음도, 질병도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음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한편 ㉡는 강남옥 역시 병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입원 수술을 할 수 없기에 벌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6. [출제의도] 구절에 함축된 의미 파악하기

㉠은 전염을 걱정하는 의사 김종우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있으려고 하는 강남옥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다. 이때 서술자는 김종우의 시각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기어코 침대에서 어머니와 같이 자는 강남옥의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3등 인간 취급하여 침대도 내주지 않는 현실에 반항이라도 하는 듯했음을 서술한 것이다. 서술자의 강남옥에 대한 태도는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이지, 비판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사회 ****

□ 출전: 김영세, <신호와 선별>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평가 신호는 발신자의 속성과 관련된 신호 유형이다.(3문단) 관례 신호는 평가 신호에 비하여 발신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낮으며, 또한 높은 비용이 요구되지도 않는다.(4문단) 한편 정보 주체들 간에 보유한 정보량은 차이가 있으며, 이때 정보량이 풍부한 쪽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1문단)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 파악하기

㉠은 기만 신호를 보낸 일부의 발신자 때문에, 정직한 신호를 보낸 발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⑤에서는 국내산 음식을 판매하는 정직한 발신자가 값싼 수입산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인 발신자의 기만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

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9.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추리하기

수신자는 기만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려내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만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경우에 수신자는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 여러 번에 걸쳐 ‘가려내기’를 수행할 것이라는 판단은 타당하다. 한편 발신자의 기만이 확산되면 신뢰할 수 있는 신호의 비율이 낮아지므로 수신자의 ‘가려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려내기’를 하는 이유는 기만적인 신호를 걸러 내기 위한 것이지 비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가려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 수신자가 ‘가려내기’를 한다면, 발신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기만하고자 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즉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0. [출제의도] 조사와 어미의 차이점 파악하기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④의 ‘않음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를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므로, ‘-ㅁ+으로’를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인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각각 ‘믿으므로’, ‘어려웠으므로’, ‘되었으므로’, ‘가므로’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기술 ****

□ 출전: 과학향기편집부, <콘텐츠 보일러>

21. [출제의도] 설명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보일러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콘텐츠 보일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을 ‘과정’에 의해 서술하고 있으며, 기체가 액체로 응축되는 현상에서 유래된 콘텐츠 보일러의 명칭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보일러의 효율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잠열 교환기와 공기비례제어기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면서 콘텐츠 보일러의 열효율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잠열의 역할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밝히고 있으므로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송풍기를 통해 들어온 공기와 연료가 버너에서 만나 연소되면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발생하며, 열 교환기에서 이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데우게 된다. 그리고 남은 배기가스 중의 수증기가 지닌 잠열을 잠열 교환기에서 회수하여 2차로 열 교환이 일어난다. 즉 ㉠의 열 교환기의 배기가스와 ㉡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가스의 양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의도] 대상 간의 차이점 파악하기

공기비례제어기술은 외부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연료와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연소 상태를 만들어 연소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고, 연료비례제어기술은 연료의 양만을 조절하여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소 효율이 낮고 유해 가스 배출이 많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박재삼, ‘수정가(水晶歌)’
(나) 서정주, ‘추천사(鞦韆詞)-춘향의 딸1’
(다) 김종삼, ‘술래잡기’

24.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찾기

(가)와 (나)는 춘향전을, (다)는 심청전을 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시이다. 세 작품 모두 고전소설 속의 인물인 ‘춘향’, ‘심청’을 변용하여 그리움, 사랑, 이상을 향한 동경,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주제를 미적으로 형상화해 내고 있다. 즉 (가)~(다)의 공통점은 ‘전통의 시적 변용과 미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5.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감상하기

제2연의 ‘흐느껴 물살짓는’은 바람에 의해 파문을 그리는 물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바람을 머금은 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방님을 비유한 바람에 의해 물로 비유된 춘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방님을 향한 춘향이의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춘향과 서방님의 감격적 재회로 보는 것은 시상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의 ‘-까나’는 의문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춘향의 순수하고 맑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7. [출제의도] 다른 장르로 변환하기

이 시는 외로운 심청을 위로하기 위해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래의 아이들과 뽀박질을 하는 심청의 모습, 술래가 되어 눈을 가린 채 움직이지 못하는 심청, 그리고 이를 보며 심청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감 있게 펼쳐져 있다. 즉 심청의 아픔, 이를 위로하는 친구들, 아버지의 고통에 공감하는 심청, 다시 이에 공감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바뀌 쓴 일기에 나타나면 된다. 따라서 ‘심청을 놀리려고 했다’는 ⑤번의 내용은 이러한 시상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예술 ****

□ 출전: 이주현, <서양화 자신 있게 보기>

2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감상’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 반대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고, ‘감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으며, 몬드리안의 작품을 예로 들어 감상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글의 처음에서 영화 감상을 언급하면서 이로부터 유추하여 미술 감상이 특별한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9. [출제의도] 유사한 상황 파악하기

㉠은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느낌 위주로 감상하면 됨을 말한 것이다. ④는 건축물이 주는 느낌을 중심으로 감상한 것이기에 적절하다. 한편 ①은 조각에 대한 감상을 배경 지식인 문학과 연결하여 감상한 것이며, ②는 탈춤과 발달 지역의 특징을 연관시켜 감상한 것이다. ③은 베토벤의 상황적 특징과 음악을 연결한 것이며, ⑤는 철학과 영화를 연결하여 감상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0. [출제의도]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하기

<보기>는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의 느낌 위주의 감상만으로는 작품의 진정한 주제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인문 ****

□ 출전: 나카자와 신이치, <꿈에서 왕으로>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리하기

비대칭성 사회에서 인간은 문명과 야만을 구별하면서 문명에 의한 야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반면 대칭성 사회에서는 신화나 제의를 통해 동물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를 통해 힘에 의한 지배나 경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2. [출제의도] 문맥을 바탕으로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신화는 인간과 동물의 대칭성 관계를 유지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즉 신화가 지향하는 바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와 대칭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국가는 비대칭성 관계를 바탕으로, 차별과 불균

형을 인정하며 문명을 가진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즉 국가가 지향하는 바는 경쟁을 통해 힘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3. [출제의도]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

이 신화에는 동물이었던 곰과 환웅의 결혼이 나타난다. 즉 동물도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그려서, 세계를 구성하는 신이나 인간, 동물 사이의 대칭적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4.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㉔는 '막기', ㉕는 '자랑하면서', '내세우면서', ㉖는 '생각하게'로 바꿀 수 있다. ㉗는 '자신의 뜻을 힘써 말함'의 뜻이므로 '힘주어 말하는' 정도로 바꿀 수 있다. ㉘의 '직면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이라는 의미로, '서로 부딪칠 정도로 마주 대하여 다툰다'의 의미인 '맞다뜨린'과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과학 ****

□ 출전: 조석주 의 숲길, <지구의 이해>

3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연흔은 바람의 방향과 항상 수직이며 바람이 거의 쉬지 않고 불면 모래층에는 항상 연흔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6.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그림에서 ㉑는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마루를 넘어서 쌓이는 곳이다. 불안정하게 쌓인 이 부분이 무너지면 ㉒에 모래가 쌓이면서 새로운 경사를 만들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사구가 이동하는 것이다. 과거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곳은 사층리가 발견되는 곳으로 ㉓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7. [출제의도] 유사한 사례 파악하기

㉔는 장애물에 의한 사구의 형성 원리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 뒤의 유리창이 뿌연게 된 것이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차가 달리면서 자동차 앞에서 뒤로 바람이 불게 되고, 자동차라는 장애물을 만나 방향이 갈라진다. 그리고 뒤의 유리창에 형성된 바람 속도가 느려지는 바람 그늘에 흙먼지가 쌓인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은 '물결 따위의 흐름이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의 의미로, ②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 일을 서두르거나 다그쳐 매우 빠르다'의 의미로, ③은 '병이 위독하다'의 의미로, ⑤는 '마음이 참고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조바심을 내는 상태에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의 의미는 '기울기나 경사가 가파르다'로, ④의 의미와 같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운문복합 ****

□ 출전: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나) 정훈, '탄궁가(嘆窮歌)'
(다) 이규보, '답석문(答石問)'

39.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는 속세의 욕망을 초월하여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며, (나)에는 '빈 배'처럼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0. [출제의도] 다른 매체로 변용하기

(가)의 '어부'는 직업적인 어부가 아니라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부로서의 직업의식은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1.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가난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다가

'가난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삼순구식', '십 년 동안 한 갓을 쓰거나' 등으로 빈곤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안연'과 '원현' 등 고사 속의 인물을 들어 빈곤을 강조했다. '가난 귀신'은 화자의 무력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의리 없는 화자를 꾸짖은 것이다. 또한 화자는 이런 질책을 들으며 태도를 바꾸어 가난을 수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비교하기

[A]와 [B] 모두 '가난 귀신'과 '바위'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드러냈으며, [A]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 '가난 귀신'과 나를 버리는 '무정한 세상'을 대조하고 있으며, [B]는 '빈 배'와 '사람이 타고 있는 배'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A], [B] 모두 과장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3. [출제의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감상

'바위'는 '변함없는 존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기존의 인식이며, 이는 '바위'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나'는 바위도 변함없는 존재는 아니며 한 군데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바위'와 '나'의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을 뒤집는 개성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언어 ****

□ 출전: 오승신, <감탄사>

44.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수식이나 서술과 같은 문법적 기능도 없고, 활용이나 파생을 하지 않으며, 상황적이고 화용론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감정이나 인지 작용 등을 표출하는 기능,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 한 단어로 화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5. [출제의도] 감탄사의 의미 파악하기

<보기>의 예문에 사용된 감탄사는 기쁨의 긍정적 의미이다. ②는 힘들, ③은 신세 한탄, ④는 무서움, ⑤는 억울함 등의 부정적 의미를, ①은 반가움의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㉔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부름의 의미로 상대방을 존대하는 형태로 쓰인 것이고, ㉕는 상대의 말화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의 말을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존대 표현에 사용한다. ㉖는 화자의 인지 작용을 표출한 것으로 '잠시 잊어버렸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런데 ㉗는 느낌을 표출하는 것으로 '머뭇거리다'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름'의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까치전'

47. [출제의도] 내용 추리하기

'군수'는 비둘기 송사 과정에서 비둘기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뇌물을 받아서 그 대가로 비둘기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의 말을 믿고 비둘기를 풀어준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8.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비둘기는 살인죄로 고소당한 이유가 자신의 불길한 운수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은 죄가 없는데, 운수가 나빠서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9.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암까치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비둘기의 죄를 암행어사에게 고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는 무도한 비둘기를 벌하고자 하는 의

도로, 신분 차별에 대한 저항은 아니다. 비둘기와 암까치의 갈등은 신분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라는 의미로 군수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원수를 갚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각골난망'은 '은덕을 입은 고마움을 뺏속 깊이 새겨 잊지 않음', '심사숙고'는 '깊이 잘 생각함',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